

노동 해도 아직 노동하지 않은 것처럼 여여히...

생활선 노동선

선(禪)에선 움직이거나 고요할 때 모든 생활 전체를 선이라고 역설하는데, 수행상으로는 오히려 활동하고 있는 속에서의 공부를 더 중시하고 있다.

대인국선(大忍國仙) 선사에게 그의 제자인 양관(梁寬)이 물었다.
“스승님의 좌우명은 어떤 것입니까?”
국선 선사가 말했다.
“하나에 돌을 지고 돌에 흙을 나른다.”

일본 조동종의 개조인 도원(道元, 1200~1253) 선사의 뜻을 이어받은 국선 선사는 경전이나 조사어록에 관한 연구보다 노동을 귀중히 여기며 참선과 탁발 행각을 하는 등 실제적인 삶을 통한 깨달음에 더 큰 비중을 뒀다. 이른바 실전을 통한 수행을 강조한 그의 기풍이 ‘하나에 돌을 지고 돌에 흙을 나른다’는 유명한 어록을 남긴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을 대표하는 선종인 조동종은 물론 한국 조계종의 뿌리인 임제종을 비롯한 모든 선종의 전통은 일상 그대로가 깨달음의 생활임을 강조하는 생활선(生活禪), 일상선(日常禪), 노동선(勞動禪)을 표방하는 공통점이 있다.

“선사님도 도(道)를 닦을 때 공을 들이십니까?”
“아무렴.”
“어떻게 하십니까?”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잠자지...”
“그거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르다.”
“올사가 다시 물었다.”
“어떻게 다르다는 겁니까?”
“그들은 밥을 먹을 때 밥만 먹지 않고 온갖 사념 망상을 하며, 잠잘 때도 잠만 자지 않고 꿈속에서 온갖 사념 생각을 일으키지.”
“어떤 것이 사념 것이고, 어떤 것이 바른 것입니까?”
“마음이 물건을 쫓으면 사념 것이고, 물건이 마음을 쫓으면 바른 것이니라.”
이 말에 올사는 크게 깨달았다고 한다.



6조 혜능 선사는 “일체 선악의 환경에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좌(坐)라 하고, 인으로 자성을 보아 움직이지 않는 것을 선(禪)이라 한다”고 했다. 사진은 울력을 통해 동중선(動中禪)을 닦는 송광사 학인들.

수행의 통일(統一)은 백장회해(百丈懷海; 749~814) 선사가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一日不作一日不食)’고 한 법문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환주청규(幻住淸規)>는 이러한 수행법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일을 할 때나 좌선을 할 때나 동정의 두 모습이 여여(如如)하게 같아야 하며 근원적인 본래심인 당체(當體)는 일체의 경계를 지양(超然)하도록 해야 한다. 비록 종일 노동을 했지만, 아직 노동하지 않은 것처럼 여여하도록 해야 한다.”

송대에 간화선을 확립한 대혜 선사도 이러한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그는 “불법은 나날이 쓰는 곳에 있다. 걷고 앉고 머물고 눕는 곳에도 있고, 차 마시고 밥먹는 곳에도 있고, 서로 말하고 묻는 곳에도 있고, 행위하고 동작하는 데도 있다”(서장)고 했다. 이처럼 일상생활 그 자체에서 늘 선심(禪心)을 잃지 않는 것이 참선의 핵심이다. 선에서는 움직이거나 고요할 때의 모든 생활 전체를 선이라고 역설하는데, 수행상으로는 고요한 곳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활동하고 있는 속에서의 공부를 더 중시하고 있다.

#지금 여기 자신의 일에 무심히 몰두해야
그러나 움직이는 가운데 평상심으로 노동한다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과중한 업무, 조직내의 상하관계에서 오는 각종 스트레스,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다가오는 크고 작은 경제 등등, 복잡한 업무나 가사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일단 긍정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되, 일할 때는 일과 하나가 돼 몰입하는 것이 좋다.

월호 스님은 “지금 여기의 이 한 가지 일, 한 가지 행동에 전신으로써 완전히 뛰어드는 것이야말로 진리의 체현”이라며 “한 가지 일, 한 가지 행동을 통해서 자아가 완전히 소멸돼 절대 진리와 하나가 되는 것”이 ‘무심형 간화(無心形看話)’의 특징이라고 밝혔다. 월호 스님은 “무심형 간화는 처음부터 화두를 쟁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몰두할 뿐”이라며 “한 생각 망념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좌선을 하든 밥을 먹든 잠을 자든 그저 무심히 하는 것이 좌선”이라고 설명했다. 일을 하되 그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이 명경지수(明鏡止水)와 같이 차분히 가라앉아 아무것도 걸림이 없는 무아지경(無我之境)이 돼 마주한 일에 몰두하는 것이 생활선의 요체라 할 수 있다. 선(禪)에 1700 공안(公案)이 있듯 순간순간 삶속에서 부딪치는 좋고 나쁜 모든 경계 하나하나가 공안이다. 그러나 늘 평상심과 무심으로 욕심 없이 사는 것은 선(禪)과 하나된 의미 있는 삶인 동시에 원하지 않아도 나와 남이 모두 이익이 되는 자리아타(自利利他)의 수행과정이 아닐 수 없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buddhapia.com

“마음이 물건을 쫓으면 사념 것이고, 물건이 마음을 쫓으면 바른 것이니라”

#경계에 갇들리지 않아야 깨달음의 생활

실제로 6조 혜능(慧能; 638~713) 선사로부터 본격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조사선(禪師禪)은 좌선 중심에서 행주좌와(行住坐臥) 어묵동정(語默動靜) 즉, 일상 중에 마음공부를 하는 생활선을 표방했다. 특히 혜능 선사의 사상을 계승한 마조(馬祖) 선사는 이른바 ‘평상심이 도(平常心是道)’라고 주장하며, 일상생활의 견문각지(見聞覺知)를 떠나지 않고 해탈하는 생활선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이와 관련, 월암 스님(벽송사 선원장)은 “혜능 선사로부터 비롯된 남종선 기풍은 훗날 생활이 곧 수행이요, 수행이 곧 생활인 생활선으로 발전하게 된다”면서 “이는 조용한 곳에 앉아 좌선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눈발에서 일하며 일체 경계를 대하는 가운데서 경계에 흔들림이 없는 동정일여(動靜一如)의 경지를 역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루는 계율을 잘 지키는 올사가 대주(大珠) 선사를 찾아와서 물었다.

선(禪)은 중생과 부처, 세간과 출세간을 둘로 보지 않으므로써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잠자는’ 생활 속 수행을 통한 해탈을 강조한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자연스럽고도 욕심없는 생활을 하되, 어떠한 인위적인 노력이나 옳으니 그르니, 좋으니 나쁘니 하는 분별심이 없다. 그야말로 무심(분별 망상)이 없는 무의식적 자각상태의 삶을 통해 더 이상 그 무엇을 원하거나 구함이 없는 행복한 삶이다.

#매사에 깨어있으면서 자신을 살피야
어느 때 한 바라문이 부처님께 여쭙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내십니까?”
“나는 하루를 앉았다가 섰다가 걷기도 하다가 눕기도 하면서 지냅니다.”
“그렇게 지내는 거야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도 모두 나와 같이 지내고 온갖 일을 다 하면서 살피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일을 다 하면서도 매사에 늘 깨어 있고, 자신을 잘 알며 모든 일을 원만하게 살피며 삽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똑같으면서 다른 것입니까?”

이 문답에서도 수행은 삶과 결코 유리된 것이 아닐 수 있다. 이러한 깨달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별심과 집착을 버린 무심과 바른 마음챙김(알아차림) 즉 ‘정념(正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즉 부처님은 늘 깨어있는 당신을 빈틈없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생각할 때,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의도를 정념으로 살펴서 사전에 조절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한다거나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없다. 감정적으로나 육근에 갇들려 하는 일이 없는 것이다. 언제나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돼 능동적으로 사했기에, 마음 내키는 대로 사했지만 하나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

#침된 진리는 삶속에서 드러난다
이와 같이 진리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에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이 조사스님들의 가르침이다. 오히려 진리를 삶과 동떨어진 곳에서 찾는 것이 큰 병폐로 지적돼 왔다. 문제는 삶속에서의 진지한 실천이 관건일 뿐이다. 그래서 조사선은 깨달음을 ‘물 길고 나무 나르느’ 자질구레한 일상사에게까지 연결시키고 노동과 수행이 둘이 아닌 재가 수행의 길을 활짝 열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성본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은 “조사선은 노동과 일상생활상의 모든 잡무를 통해서 본래심(平常心)을 전개하는 동중(動中)의 공부”라고 정의했다. 이는 동산법문을 펼친 5조 홍인(弘忍; 601~674) 스님이 처음 4조 도신(道信; 580~651) 스님의 문하에서 수행할 때 닦은 노동에 힘쓰고 밤에는 좌선에 힘썼다고 전하는 기록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육조단경(六祖壇經)>에는 홍인 스님 문하에서 행자였던 6조 혜능 스님이 디딜방아를 짚는 노동을 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러한 선원 스님들의 노동은 중국 당대 조사선의 형성과 더불어 단순한 일이 아닌 참선 수행의 차원으로 새롭게 전개됐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특히 노동과

귀신뽑는 신통술!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과 모습의 점괘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상대방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
귀신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제 권하기가 쉽습니다!

- * 귀장술 12신궁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 귀장술 12신궁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 귀장술 12신궁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 귀장술 12신궁의 매매·이동운 보는 법
-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 귀장술 12신궁의 금전재물운 보는 법
-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 부부인연(因緣)에 낀 액운(厄運)암시록
- * 집안 동토귀신 알아내는 법
- * 자녀역운(厄運) 차단법
- * 취직시험·승진시험의 합격 판단법
- * 선거 후보당선 벼슬하는 여부 판단법
- * 관청·공무원 빈자리 입관가능 여부
- * 소송·관계사의 승패 판단법
- * 보고싶은 사람, 기다리는 사람 소식가능일
- * 가출자가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
- * 잃어버린 분실물 위치 추정법
- * 도주·도망간 사람이 어느쪽으로 갔을까?

- * 12신궁 숨어있는 조상원귀법
- * 12신궁에 안장된 악령귀신
- * 귀장술(歸藏術)로 보는 前生(前世)투시법
- * 前生의 夫婦(夫婦)인연 원침살이 現生(今生)에 미치는 현상
-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빙의(憑依)작귀신론
-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사후(死後)환생(轉生) 귀신작해론
- * 산소·무덤에 관해서 [음택법]
- * 무덤안 유골의 현재상태 알아내는 법

글·백초스님
상·하권 / 720면 / 정가 각 120,000

